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 세대간 지원 제공과 수혜의 의미

이 재 림(영남대 교수)

I. 서론 및 선행연구 고찰

취업모 가족에서 조모에게 어린 자녀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양육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모의 만 5세 이하의 자녀 중 42.9%를 조부모가 돌보았으며, 만 1세 이하의 경우에는 57%를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부의 보육비 지출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나 비혈연인의 돌봄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조부모, 특히 조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Chin, Lee, Lee, Son, & Sung, 2012; Lee & Bauer, in press). 그 결과 대중매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노년층에서는 ‘손주 안 봐 주는 방법’이 한동안 인기 있는 농담거리였고, 신문지상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취업모의 증가에 따라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선뜻 손자녀를 돌보겠다고 자처하는 조모는 감소하고 있는 맥락과 관련이 깊다. 가족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현대 여성노인의 특성상(김은정, 정순돌, 2011) 손자녀 양육지원은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의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가 응답한 손자녀 양육지원의 이유로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이슈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친족 상호작용의 양계화 경향이다(성미애, 2006). 기혼여성이 친정과 교류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의 친족관계가 양계적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때 실례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친정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는 취업모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한 친정모와의 교류 증가만을 토대로 한국의 친족관계가 양계적 특성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기혼남녀가 부모세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부계냐 처계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경혜, 윤성은, 2004). 실제로 Ok(2011)은 현대 한국가족의 특징을 개괄하면서 한국의 친족관계가 진정한 양계적 속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Lee와 Bauer(in press)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동기를 분석한 결과 친정모의 경우에는 딸의 양육자 역할을, 시모의 경우에는 아들의 부양자 역할을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0-351-C00002]

보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중요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계적 속성 이면에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여성취업이나 양계화의 맥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이고 언론 및 일상대화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지난 몇 년간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모든 연구가 조모 개인의 손자녀돌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의 질적 연구는 조모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김문정, 2007; 김문정, 정재원, 2010a; 김윤주, 방미란, 2011; 김은정, 정순둘, 2011; 김은주, 서영희, 2007; 이은희, 하주영, 이정란, 황은희, 2009; 이현수, 2007)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공존하는 양면적 속성이 있음(김윤주, 방미란, 2011; 김은정, 정순둘, 2011; 김은주, 서영희, 2007; 이은희 외, 2009; 이현수, 2007)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조모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조모와 취업모 두 사람 사이에서 교환되는 현상이라는 점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즉 조모와 취업모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고 구성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갖는 관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최근의 양적 연구 역시 손자녀 양육지원이 조모 개인에게 가져온 결과를 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양적 연구를 보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강유진, 2011; 배진희, 2007;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생활만족도(김문정, 2009; 김문정, 정재원, 2010b; 이현지, 윤은주, 2011; 정재원, 김문정, 2010), 건강(백경훈, 2009), 우울(김동배, 박은영, 김세진, 2010; 원서진, 2011), 양육스트레스(김문정, 정재원, 2008; 박홍주, 정향미, 2010; 오진아, 2006, 2007;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등 주로 조모 개인 수준의 특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관한 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2011)의 연구 한 편에 불과하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있어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모와 취업모 양측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취업모의 체험에도 관심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손자녀 양육지원의 동기를 연구하기 위해 조모와 취업모를 동시에 면접한 연구(Lee & Bauer, in press)가 한 편 있을 뿐이다. 성인 딸의 모녀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취업모도 함께 면접한 연구(김인지, 이세인, 이숙현, 2010)가 있으나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연구의 중심상황은 아니었다.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근거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실체(realities)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되고, 유지되며, 해석되는 것이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Gubrium & Holstein, 1990; Hagemester & Rosenblatt, 1997).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조모와 취업모가 양육지원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관계 경험 역시 이들이 처한 가족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구성되고 변화할 것이다. 결국 조모와 취업모가 공유하는 관계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배경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현상의 다면적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조모와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취업모 가족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이러한 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공유하는 관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는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화, 주거 등 물리적 측면도 포함한다. 한편,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현상은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조모와 이를 이용하는 취업모 양방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모녀관계 또는 고부관계가 이러한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Gattai & Musatti, 1999). 그러므로 손자녀 돌봄을 매개로 한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지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양측의 이야기를 통합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조모의 양육지원을 활용하는 취업모 양측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고 비교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지원 및 세대간 지원에 대한 보다 역동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와, 이 취업모의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친정모 또는 시모를 쌍으로 모집하였다. 표집방법은 전형적 사례를 선택(Goetz & LeCompte, 1984)하는 의도적 표집(Patton, 2002)과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취업모와 조모는 쌍으로 모집하였으나, 솔직하고 편안한 면접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접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의 질문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면접내용을 함께 구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적극적 면접법(Holstein & Gubrium, 1995)의 원칙에 따라 연구주체의 범위 안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순서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내용은 상당 부분은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취업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취업모가 자녀를 조모에게 맡기고 조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할애하였다. 면접은 2008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참여자의 집 또는 직장근처의 커피숍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2.5시간이 소요되었다. 녹음기로 녹취된 면접자료는 꼼꼼히 전사한 후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2. 면접참여자의 특성

면접참여자는 조모와 취업모 21쌍, 총 42명이었으며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모 21명 중 13명은 취업모의 친정모였고 8명은 취업모의 시모였다. 조모의 면접 당시 평균 연령은 만 54세에서 만 70세 사이였으며 평균 만 60.7세였다. 조모는 주로 2명 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의 수는 평균 2.62명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2명의 조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상태였다.

면접에 참여한 조모들은 전일제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주당 평균 58.6시간 손자녀를 돌보았다.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의 연령은 만 2개월에서 5세 사이였는데 12개월 미만이 6명, 12-23개월이 7명,

2-3세가 4명, 4-5세가 4명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3세대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7명, 손자녀가 주중에 부모와 떨어져 조모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6명, 손자녀를 아침에 조모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밤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4명, 조모가 주중에는 취업모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3명, 조모가 취업모의 집을 매일 방문하는 경우가 1명이었다. 조모의 양육지원 기간은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를 1년 이상 3년 미만 돌본 경우가 11명, 3년 이상 5년 미만 돌본 경우가 5명으로 장기간 돌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손자녀 돌봄에 대한 수고비는 월 50 이상 100만원 미만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50만원 미만이 6명, 월 100만원 이상이 3명이었다.

<표 1> 면접참여자의 특성

조모 (N = 21)	n (%)	취업모 (N = 21)	n (%)
직업			
취업모와의 관계		관리직	2 (9.5)
시모	8 (38.1)	사무직	10 (47.6)
친정모	13 (61.9)	기술직	8 (38.1)
		자영업	1 (4.8)
연령(면접일 기준) (범위: 54-70세)	M = 60.7	연령(면접일 기준) (범위: 29-38세)	M = 32.0
자녀 수	M = 2.62	자녀 수	M = 1.43
1명	1 (4.8)	1명	13 (61.9)
2명	11 (52.4)	2명	7 (33.3)
3-7명	9 (42.9)	3명	1 (4.8)
교육수준(중퇴 포함)		교육수준	
무학 또는 초등학교	7 (33.3)	고등학교	2 (9.5)
중학교	4 (19.0)	전문대(2년제)	5 (23.8)
고등학교	5 (23.8)	대학교(4년제)	9 (42.9)
대학교	4 (19.0)	대학원(석사)	5 (23.8)
대학원	1 (4.8)		
결혼지위		결혼지위	
기혼	19 (90.5)	기혼	20 (95.2)
사별	2 (9.5)	이혼	1 (4.8)
손자녀 돌봄 시간(주당 평균) (범위: 25-84시간)	M = 58.6	일하는 시간(주당 평균) (범위: 10-70시간)	M = 42.1
돌보는 손자녀 연령1)		조모 양육지원 기간	
12개월 미만	6 (28.6)	1년 미만	3 (14.3)
12 - 23개월	7 (33.3)	1년 이상 - 3년 미만	11 (52.4)
2 - 3세	4 (19.0)	3년 이상 - 5년 미만	5 (23.8)
4 - 5세	4 (19.0)	5년 이상	2 (9.5)
정기적으로 돌보는 손자녀 수			
1명			12 (57.1)
1명(하루 중일) 및 1명(어린이집/유치원 퇴원 후 단시간 또는 부정기적)			4 (19.0)
2명 이상			5 (23.8)

<표 1> 계속

조모 (N = 21)	n (%)	취업모 (N = 21)	n (%)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			
3세대 가구			7 (33.3)
손자녀가 주중에 조모의 집에서 지냄			6 (28.6)
조모가 주중에 취업모의 집에서 지냄			3 (14.3)
손자녀를 조모의 집으로 날마다 데려옴			4 (19.0)
조모가 취업모의 집에 매일 방문함			1 (4.8)
조모의 수고비			
없음/부정기적			2 (9.5)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주로 3세대 가구)			3 (14.3)
50만원 미만			6 (28.6)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7 (33.3)
100만원 이상 - 120만원			3 (14.3)

1) 두 명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가장 어린 손자녀의 연령임

면접에 참여한 취업모 21명의 연령은 인터뷰 당시 만 29세에서 40세 사이였으며 평균 만 32세였다. 취업모 중 13명은 1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7명, 3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1명이었다. 이혼한 취업모 1명을 제외한 20명이 기혼상태의 맞벌이 부부였으나 한 명은 남편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취업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1시간이었는데,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였고 이 중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5명이었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강사, 교사, 사서, 간호조무사 등)이 8명이었으며, 기업의 관리직 2명, 자영업이 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재학 및 중퇴 포함)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대졸과 석사(재학 포함)가 각각 5명이었다.

3. 자료분석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정판 Stevick-Colaizzi-Keen 방법(Moustakas, 1994)의 분석단계를 따랐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현상학적 환원을 시도하였다. 둘째, 면접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이러한 진술들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묶고 이 의미단위의 목록을 만든 후, 인용구를 넣어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였다. 넷째, 기술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관점을 찾아내고, 현상에 대한 증거들을 다양화해 보는 등 창의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섯째, 경험의 전체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하였다. 여섯째, 다섯 번째 단계의 결과물을 참여자 개인의 경험에 대입해서 점검해 보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글쓰기를 하였다. 한편, 조모와 취업모를 동시에 연구한다는 본 연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하여 서로 짝을 이루는 조모와 취업모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교하였다. 또한 모녀관계와 고부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모와 친정모, 딸과 며느리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 201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모의 관계 경험

1) 부담감과 부모 마음의 공존

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지원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손자녀 돌봄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손자녀가 아들이나 딸의 자녀라는 점으로 인해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거의 모든 조모가 이구동성으로 ‘손주는 조심스럽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손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 성인자녀나 성인자녀의 배우자가 원망을 할까 봐 걱정이 되고 성인자녀나 성인자녀의 배우자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자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간혹 외손자녀는 더 조심스럽다는 조모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모에게 외손자녀와 친손자녀는 모두 전적으로 맡아 돌보기에 조심스러운 존재였다.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 조모들은 손자녀의 건강, 안전, 영양에 가장 큰 염두를 두고 손자녀를 돌보았다. 조모들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지원은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다른 부담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모들 사이에서는 ‘애 봐 주는 공은 없다’거나 ‘애 보느니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손자녀 양육지원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을 예외적인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주가 더 부담은 오죠. 자식은 그냥 내 멋대로 키워도 그냥 그랬는데, 손주가 더 부담스럽지. ‘아이고 잘 커야 되는데’ 그러고. 이거는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서, 사위 자식이고 딸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키우다가 만약 설사병이 낫든가 감기가 걸렸던가 하면 내가 잘못했나 하는 게 그런 게 부담이지. 내 자식은 그냥 추워서 이렇게 됐나 보다, 남한테 전가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아는데, 이거는 나한테 오잖아, 전가가, 내가 키우니까, 그러니까. (5, 친정모)

조모의 이러한 부담감은 성인자녀 및 성인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가중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였다. 성인자녀나 성인자녀의 배우자가 조모의 양육지원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려고 하거나 손자녀 돌봄 이외에 가사노동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조모의 부담감은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조모가 장기적으로 양육을 지원해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둘째 자녀를 계획 또는 출산한 경우나 손자녀 양육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이 불투명할 경우 부담감이 커졌고, 성인자녀 및 성인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을 함께 지원하는 조모의 경우 더 큰 부담감을 느꼈다. 반면에 양육지원 기간을 분명하게 합의한 경우, 손자녀 돌봄 이외의 가사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시간대 이외에는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완화되었다.

애 봐주면 딸 맨날 오지, 사위 오지. 애 봐주는 건 또 봐주는데 밥 해주는 것. 반찬. 어휴,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애만 딱 보고 금요일 날 와서 데려가고 월요일 날 데려오면

그거는 편할 것 같아. 우리 사위도 맨날 애 보고 싶다고 “장모님 같게요.” 애가 보고 싶으니까 봐야지 당연히. 그런데 오면 밥 해줘야 된다는 그게 스트레스가. 반찬이 요즘엔 할 게 없잖아. 그게 애 봐주면 보너스로 사위하고 딸 밥 해주는 것. (중략) 우리 식구끼리 있을 때는 그냥 뭐 대충 먹고 있는 걸로 반찬 먹고. 사위는 꼭 새로운 것을 한 가지라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식구끼리 먹으면 반찬 통에다가 놓고 먹는데 사위 오면 여기다가 다 놔야 되고, 접시에다가. 또 먹고 나면 차 줘야지, 과일 줘야지. 그게 애 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 그런데 우리 딸은 모를 거야. 아마. 당연히 엄마는 하는 건 줄 아니까. (19, 친정모)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는 성인자녀 및 성인자녀의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한편 ‘부모 마음’도 자주 경험하였다. 조모들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자식의 힘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며(20, 친정모), 부모라면 자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고 하였다. 조모들은 무엇보다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딸이나 며느리를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희생’ 혹은 ‘양보’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많은 조모들이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손자녀를 데리고 자거나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피로 및 신경통 등 건강문제를 겪더라도 내색을 하지 않기도 하였고 손자녀 양육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조모도 몇 명 있었다.

어떨 때는 재 엄마가 늦게 오면 두 애들이 늦게까지 잠을 안자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도와야 자. 그러면 어쩔 때 짜증스러울 때는 머리에 쥐가 나요. 짜증스러워서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면 “엄마 나도 빨리 가고 싶지 어떻게 해. 회사 일인데”하면 별 수 없고. 떨어져, 회사가, **으로 다녀요. (중략) 애네 엄마도 힘들죠. **으로 다니느라 차를 네 번이나 타고 다니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막 지쳐서 오니까 안쓰러워 나도.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내가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가지. 힘드니까. 안쓰러우니까. (6, 친정모)

이러한 ‘부모 마음’은 친정모와의 면접에서 두드러졌다. 면접에 참여한 상당수의 친정모들이 시모와 친정모를 비교하였다. 즉 과거의 시모는 친손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오늘날의 시모는 부담스러운 손자녀 양육지원을 기피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반면, 친정모는 손자녀 돌봄이 부담스러워도 취업모로서 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켜보다 보면 손자녀 양육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시모의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시모가 주택비용이나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 못했거나 아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서 며느리가 경제활동에 종사한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책임감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의 부담감을 감수한다고 하였다. 딸이나 며느리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자랑스럽게 느끼고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조모도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성인자녀 및 성인자녀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조모가 흡족해 하였다.

2) 경계 설정 전략

조모들은 지나친 부담감을 피해 나가면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경계 설정이란 돌봄과 관련해서 조모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해 주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의 종류는 크게 현재의 돌봄에 대한 경계와 미래의 돌봄에 대한 경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돌봄에 대한 경계란 손자녀의 양육의 주도권이나 의사결정권을 취업모에게 줌으로써 조모의 역할과 취업모의 역할을 구분하고 손자녀를 돌봄에 있어 조모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으며 무엇을 해 줄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조모가 언급한 현재 돌봄에 대한 전략은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였다. 이러한 전략은 조모가 손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손자녀 양육의 주도권이나 책임은 취업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조심스러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모의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이외에도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 전략은 취업모와 손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취업모의 방식을 존중해 줌으로써 딸 또는 며느리와의 긴장상황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양육방식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현대의 양육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애기는 우리 *씨네 손자지만 일단은 엄마에게 소속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손주 둘을 기르고 내 아이 셋을 기르고 내 댄에는 애기 기르는 데는 노하우가 너보다 낫다 이렇지만은 그래도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새로운 요즘 지난 애기 기르는 육아방법은 네가 공부해서 네가 나한테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불안감을 없앴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일체 교육은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우유 먹이는 방법, 우유병 소독하는 것, 물 끓이는 것, 우유 타는 것 아주 뭐 소소한 것. 기저귀 가는 것 뭐 이런 것 일체를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이는 시간. 그때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애기를 봐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야 된다. (11, 시모)

현재의 돌봄에 대한 경계에서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 이외에 자주 언급된 전략은 손자녀 교육 말지 않기였다. 여기서 교육이란 책 읽어주기, 한글이나 영어 가르치기, 교육 프로그램에 데리고 다니기, 교육 관련 정보 수집하기 등 주로 손자녀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였다. 대부분의 조모들은 제한된 에너지 수준, 낮은 교육수준, 가사노동 부담 등 조모가 맡고 있는 다른 책임 등을 감안할 때 손자녀의 교육적인 활동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여겼다. 조모들은 ‘나에게 교육은 기대하지 마라’ 혹은 ‘애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취업모에게 반복해서 전달함으로써 교육은 조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경계를 설정하였다.

“주말에라도 너희들(딸과 사위) 애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책이라도 한 번 더 읽어주고 가르쳐라. 공부는 너희들이 맡아” 그러죠. “나는 공부 가르치고 그럴 시간이 도대체 없다. 때

되면 밥해야 하고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지네 엄마 아빠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해야 하고 하니까 책임을 지우죠. (중략) 나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애 가정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 사위도 그래 어떨 때 “책 많이 읽어줬어요? 대화 많이 했어요?” 그러거든요. “나 그럴 시간 없어, 그런 거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해. 너희들이 부모니까 너희들이 와서 해”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애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림도 살아야 하고 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마음은 있어도 그게 안 돼요. (1, 친정모)

교육 활동 이외에 조모들이 현재의 돌봄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고 한 부분은 특정 활동(예를 들어 밤에 데리고 자기, 목욕시키기, 업어주기 등) 하지 않기, 주말 및 휴일에 돌보지 않기, 식사준비 및 청소 등 가사노동 하지 않기 등이었다. 몇몇 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일부는 본인의 집에서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조모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한편 취업모의 살림까지 도와주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다. 반대로 어떤 조모들은 취업모의 집에서 머물면서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취업모가 퇴근한 이후에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 전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구체적인 경계설정의 영역은 조모에 따라 다양하였으나 조모가 느끼는 손자녀 양육의 강도를 조절하고 과도한 책임을 맡지 않음으로써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계설정의 목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애들이 다 이제 주 5일 근무니까. 맨날 나도 주 5일 근무자라고 그러잖아. 나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부터는 나도 자유라고 내 시간이라고 아무도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때 나가고 막 그러죠. 애들 들어오는 것 보면 얼른 내가 가방 들고 나가고 (웃음)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죠. (16, 친정모)

둘째, 미래의 돌봄에 대한 경계설정이란 언제까지 혹은 몇 명의 손자녀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조모의 견해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조모들은 이러한 경계설정을 통해 자유로운 노후를 포기하고 장기간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조모들이 언급한 전략은 한 명, 혹은 드물게 두 명의 손자녀만 돌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돌보는 손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조모들은 둘 이상의 손자녀를 동시에 돌보게 될 경우 육체적 부담이 심하고, 새로 태어난 손자녀를 추가로 돌보게 될 경우 양육지원의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후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약 1/3의 조모들은 직간접적으로 성인자녀 부부가 둘째를 출산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둘째 출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했다.

저번에 며느리한테 “둘째 낳으면 친정어머니한테 봐 달라고 해라. 둘을 어떻게 보냐?” 그랬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못 말긴 형편이면 봐 줘야지 어떻게 해. 둘은 낳아야 되니까. 사실 셋은 낳아야지. (연구자 : 셋 낳으면 봐 주시겠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면 7년을 더 봐줘야 되는데 “야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다 늙어서 어떻게 하나 칠십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애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지네들끼리 편할 생각만 알지 지네들도 내 나이 먹어 보면 알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엄마들 마음을 몰랐어요. 지네들도 엄마 나이가 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겠지. 지금은 자기들이 위주이니까 우선이잖아. 낳으면 봐줘야지 어떻게 해요. 고민은 많아요. (8, 시모)

손자녀 양육지원에 저항감이 없거나 적었던 조모들조차도 이후에 태어나는 손자녀는 돌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직장을 그만 두거나 상대편 조모에게 양육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조모가 한 명의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책임, 도리,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으나 그 이상은 선택사항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조모들은 이후에 태어나는 손자녀는 돌보지 않겠다는 경계로 인해 내적으로 딜레마를 겪었다. 한편으로는 손자녀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자녀를 둘 이상 갖고 싶어 하는 성인자녀 부부의 욕구도 이해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성인자녀의 부부가 자녀를 더 낳는 것을 선뜻 지지하지 못했다.

현재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중단하는 시점을 밝히는 것도 미래의 돌봄에 대한 또 다른 경계설정 전략이었다. 조모들은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와 같이 손자녀가 특정한 발달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손자녀 양육지원을 종료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지원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털어 버리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흥미롭게도 조모들은 미래의 돌봄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성인자녀 부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경계를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 부부가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있고 손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더라도 방과후에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면 손자녀 양육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미 손자녀를 둘 이상 돌본 조모들은 이미 이렇듯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였다. 몇몇 조모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아들이나 딸 부부에게는 경계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나는 3년만 봐주고 안 봐준다고 딱 단정은 지었는데 속으로 는 에이, 그래 조금 더 봐줘야 되겠다 싶어요. 거기(어린이집) 갔다가 또 오는 시간이 6시 라는데 애네들 퇴근이 7시이니 맞지를 않지. (중략) 그때 가봐야 또 알지 이제. 내가 3년은 뭇을 지어 냈어. 3년은 내가 봐 줄게 그랬더니 3년 밖에 안 봐준다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3년밖에 안 봐 준대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 때봐서 몸이 괜찮으려나 그것은 장담을 못 하니까. (4, 친정모)

한편, 취업모와의 면접 중에도 조모의 경계유지 전략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여 취업모들도 조모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돌봄에 대한 경계 중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

주기는 취업모의 입장에서는 조모의 배려로 받아들여져 감사하는 대목이었고,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는 취업모 입장에서도 조모의 부담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몇몇 취업모는 책 읽어주기 등 교육적 활동이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조모가 교육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이러한 취업모의 요구가 조모와 갈등상황을 빚기도 하였다. 다음은 손자녀 교육 말지 않기 부분에서 인용한 친정모 딸의 반응이다.

애기가 5-6개월 되면서부터 책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고, 뭐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한데, 제가 못 하니까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집에서 **랑 놀면서 그냥 놀지 말고 책 읽어주면서 놀라고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 말라고. 지금도 힘든데 애 교육까지 나한테 다 그렇게 하면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때는 제가 엄마한테 되게 서운했어요. (중략) 친정엄마한테 바래서 뭐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사실 부모님들이 집안일이나 애기 봐주시는 것은, 집안일은 늘 하시던 거고, 애기 보시는 것은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시지만, 또 요즘 흐름에 맞는 교육까지 해달라고 하면 처음하시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우리 키울 때 책 읽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는 안 키웠잖아요. 요즘처럼 안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것을 해보라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해야 할 것을 엄마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많이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친정엄마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1, 딸)

반면 미래의 돌봄에 대한 경계는 취업모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만 다소 야속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았다. 양육지원 이외의 보육형태를 선호하지 않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취업모의 경우 둘째가 태어나도 돌보지 않겠다는 조모의 경계설정은 취업모가 둘째 출산과 경제활동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모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를 출산하는 문제로 조모와 취업모가 입장을 달리하여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일정 기간 이후로는 돌보지 않겠다는 경계 역시 대안적인 보육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취업모의 마음을 조금 하게 하기도 하였고 경제활동 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모에게는 야속하거나 섭섭한 전략이었다.

엄마는 둘째 낳으면 못 봐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안 낳겠다 그랬어요. 시부모님이 둘째 낳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중략) 진짜 둘째 낳으면 엄마가 못 봐 준다고 했고 나도 둘째까지 맡길 염치도 없고. 그럼 당연히 내가 일을 그만 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애를 포기하게 되니까. 애를 가졌으면 몰라도 안 가졌으니까 애를 하나 안 낳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딸)

2. 취업모의 관계 경험

1) 의존관계

취업모들은 어린 자녀를 조모에게 맡김으로써 친정모 또는 시모와 일방적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안 계셨으면 아무 것도 못 했을 거예요’라는 여러 취업모들의 이야기와 같이 조모에 대한 의존은 자녀양육에 그치지 않고 가사노동, 주거 등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 생활 자체가 애를 봐 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생활인데 시어머니가 봐 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시어머니가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되게 고마운 존재이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오히려 내 애를 봐 주고 있다는 것보다 나를 봐 주고 있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7, 며느리)

취업모에게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해 형성한 의존관계는 불가피한 동시에 만족스러운 관계였다. 무엇보다 이들 취업모에게 있어 조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 명의 취업모가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하여 의존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이 ‘안 봐 주셨으면 그만 두었겠죠’라고 하거나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보육시설의 경우 질적으로 흡족한 시설이 거주지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야근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고, 탁아모 고용은 비용부담이 큰 동시에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주말에 일을 해야 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모의 양육 지원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기면서 현 상황에 만족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이 일어날 경우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나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돈도 돈이지만 맡길 데가 우선 없는 거예요, 맡기고 싶어도. (마음에 안 드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나 혼자 마음 아프고 그런 거는 나중 일이에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신세를 또 비비는 거예요, 철관 깔고 그냥 또 엄마한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중략)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나마, 남 보다는 엄마가 어찌 되었든, 수면제를 넣는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엄마도 힘든 거 알면서 한 마디로 내 자식 내가 키워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엄마한테 자꾸만 의지하고, 미안한 거 알면서 그렇게. (4, 딸)

취업모에게 있어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의존은 만족스럽고 얻는 것이 많은 관계를 의미했다. 취업모는 비혈연인이 아닌 가족에게 어린 자녀를 믿고 맡김으로써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모의 양육지원에 만족하였다. 또한 조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에도 만족하고 있었

는데 ‘저보다 잘 보세요’라고 하는 등 양육경험이 풍부하고 손자녀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모가 취업모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잘 돌보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취업모들은 자신을 키운 친정모가 양육을 지원할 경우 매우 만족하였다. 여기서의 만족은 양육의 질에 만족을 의미하기 하였지만 ‘엄마라서 편한’ 장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친정모에게 양육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모에 비해 의존하는데 심적 부담이 덜하고 취업모가 선호하는 양육방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모의 고충을 이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친정모의 양육지원에 만족하는 배경이었다.

(엄마가 봐 주기 때문에) 좋은 점은 우선 제가 평소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신경을 전혀 일하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아기 생각은 거의 안 할 정도로 엄마가 보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면서 일에 몰두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그러니까 우선 안정이 된다는 장점이고, 단점, 단점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생각 후) 단점은 솔직히 지금까지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를 자주 못 본다는 거 외에는 단점은. 엄마가 워낙 잘 봐 주시니까. 엄마가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불만이 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중략) 저도 며느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희 엄마가 봐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시어머니가 봐 주면 저는 싫지만 말 못 하고. (중략) 우리나라의 육아는 엄마의 책임이잖아요. 엄마가 회사 다녀야 되고 육아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너무 원더우먼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엄마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봐 주는 게 아이한테도 엄마의 그런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6, 딸)

취업모들의 이러한 의존관계에 대해 조모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한 취업모가 조모를 ‘최대의 피해자’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취업모들은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을 조모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하였다. 특히 친정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딸을 위해 헌신하는 조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손자녀 양육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몇몇 취업모들은 감사나 죄송함에서 그치지 않고 조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이기적’이라거나 조모를 ‘착취’하고 있으며 ‘철판을 깔고’ ‘비비는’ ‘뻘뻘한’ 모습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양육지원에 대한 수고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취업모도 많았다. 반면 조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하는 현상을 현재 취업모 세대의 ‘트렌드’라고 함으로써 의존적인 세대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나가니까, 나가서 저녁에만 잠깐 보는데도 솔직히 힘들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신랑 출근하면 제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엄마는 그것을 얼마나 힘들까. 솔직히 말을 하면 말하기 전에는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루 종일 아기를 데리고 있어보니까, 힘든 것을 아니까 죄송해요. 솔직히 돈도 많이 못 드리고 돈이라도 넉넉하면 정말, 저는 **강사를 하니까 아기 봐주는 시간을 제가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엄마한테 50만원을 드리는데

50만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웃음) 제가 **강사 일을 입장에서는. 5일 동안 40시간이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죄송하죠. (5, 딸)

한편 조모와의 면접 결과, 취업모의 의존에 대해 양가적이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해야 하는 취업모의 상황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장시간, 그리고 장기간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의 경우 부담감 또한 심각하였다. 몇몇 조모의 경우 의존하려는 딸이나 며느리가 이기적이라고 느끼거나 조모의 헌신에 대해 고마운 줄 모른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손자녀 위주로만 생각하고 조모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취업모에게 실망감을 느꼈으며, 조모의 양육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친정모도 더러 있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이제 5일 동안 열심히 봐줬으니까 지네들이 데리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놀러 갈 때는 나한테 맡긴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거 같고. 이제 애를 봐주고 자기네들끼리 문화생활을 하러 다닌다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때. (사위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처갓집에 의존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면 관계 안 하겠는데 그런 게 보여서. (중략) 식사 같은 것도 아이를 맡겼으면 아이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예 주거나 지도 이쪽에서 좀 식생활 같은 것도 너무 이쪽으로 의존을 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로 인해서도 이미 다 지쳐져 있는데 그 아이로 지쳐져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이지 않는 것뿐인데, 당연히 뭐 식사까지 나한테 제공하기를 은근히 바라는데 (15, 친정모)

취업모의 경우 현재 조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추후 노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취업모가 딸인 경우는 무남독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딸이기 때문에 부모부양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맡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취업모가 며느리인 경우에도 손자녀 양육지원과 향후 시부모 부양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간혹 며느리 중 손자녀 양육과 무관하게 아들이 시부모를 부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 미래의 부양을 감안해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건강하셔서 그런지 그런 생각(나중에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까지 안 해 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매번 하시는 얘기가 또 내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다. 저희 엄마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 가지고 아직 양쪽 다 건강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저희가 첫째이기는 해요. 오빠(남편)가.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뭐 어떻게 모셔야 되면 모시는 거고요. 그 생각은 안 해 본 거 같아요. (14, 며느리)

조모와의 면접에서도 현재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다고 추후 성인자녀에게 부양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조모는 거의 없었다. 거의 모든 조모가 성인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혹 솔직하게 ‘생각은 해 보지만 기

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성인자녀의 부양을 받으면 좋겠지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시대이고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조모도 있었다. 소수의 조모만이 아들에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조모가 손자녀 양육 지원을 부모의 '책임', '도리', '의무', '숙제' 등으로 받아들인 반면 노후 성인자녀에 의존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애 봐 달라는데 애도 안 봐 주고 나 할 일만 하고 돈 버느라고 안 봐 주는 건 좋아. 그렇지만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욕심 있어서 애도 안 봐 주고 그랬다면 애들이 생각이 다르지. 다르게 생각했을 거라 싶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나 지금이나 나는 부모로써 나는 저희들한테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 할 일 다 하고 저희들 다 가르치고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손주까지 봐 주고. 그렇다고 해서 늙어서 저희들한테 짐이 되가지고 돈 타 쓰는 그건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던 거고 마음속으로야 부모 자식기간이니까 의지하고 할 일은 있어도 그런 기대 심리는 별로 없으니까. 지금 생각에. 그리고 그만큼 기대고 살지 않게끔 이렇게 이것저것 해 놔는데 모르죠. (9, 시모)

2) 의존관계 유지 전략

조모들이 부담감 완화를 위해 경계설정 전략을 사용했다면 취업모들 역시 조모를 배려하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조모의 불만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는 조모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취업모들의 사용한 전략은 매우 다양했는데 눈치 보기, 보상하기, 돌봄 시간 줄여드리기 등이 있었다. 모든 취업모가 이러한 의존관계 유지 전략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하였다.

눈치 보기는 조모의 심리상태를 살핀다거나 양육방식에 대해 요구를 하지 않고 조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략이었다. 조모가 취업모의 양육방식 따라주기 전략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모도 요구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양육방식을 존중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시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요구하기 어려운 특성상 눈치 보기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전략 사용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고부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냥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자기가 보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봐 주시는 거라서 제가 뭐 조심스럽죠 약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제 뜻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거면 제 생각대로 제 육아방식대로 키우고 싶으면 제가 키워야죠. 그 부모님한테 맡기고 나서 제 뜻대로 100% 키우기를 바란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마음을 다스렸어요. 포기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한 예로 일례로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애기를 이유식을 해 주는데 요즘은 막 엄마들이 극성이잖아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내 아이한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해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애기 먹는 거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그날그날 만들어서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3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조금씩 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9, 며느리)

보상하기는 매달 수고비를 드리거나 정기적인 수고비 이외에 용돈을 드리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선물, 외식, 간식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방법이었다. 돌봄 시간 줄여 드리기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퇴근 일찍 하려고 노력하기, 일의 양 줄여보기, 특정한 돌봄 관련 활동(예를 들어 데리고 자기, 젖병 소독, 이유식 만들기)은 취업모의 활동으로 고정하기, 어린이집과 병행하기 등에서부터 주말이나 휴일에 자유시간 드리기, 휴가 드리기, 여행 보내 드리기 등 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취업모는 조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조모의 욕구를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현재의 의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금 항상 좀 죄송하죠. 물질적으로나마 좀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애 어린이집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 진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이가 남자 아이다 보니까 애가 돌 지나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때부터는 2층에 어머니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거든요. 애하고만 있어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위험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계속 따라 다니셔야 되니까. 집안에 저도 회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바로 애를 제가 또 배턴 터치해서 봐야 되니까 저희 집도 엉망이고 어머니도 피곤하시니까 어머니도 집도 엉망이고. 그런 게 계속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다가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아버님이 활동성이 굉장히 있으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어디를 다니시고 싶으신데 어머니는 애 때문에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귀찮아하시고 다툼이 좀 있으시고 이랬어요. 애가 있어도 아버님 술 드시고 그러면 다투시고. 애가 몇 번 보게 된 거를 신랑 이랑 저랑 알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좀 심하게 다투셔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머니에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하루 종일 놀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잠깐씩만 욕구가 충족이 되고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3, 며느리)

3. 손자녀 양육지원과 물리적 자원

1) 수고비의 상징성

거의 모든 취업모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고 단 2쌍의 경우에만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보상을 하였다. ‘수고비’, ‘월급’, ‘용돈’, ‘생활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금전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우선 금액이 매우

다양했는데 적게는 월 1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월 120만원까지였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금액이 포함하는 내용도 매우 다양해서 생활비(식비, 손자녀 간식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드리는 경우, 기타 지출은 별도로 드리고 순수하게 수고비만을 드리는 경우, 3세대가 동거하는 경우 수고비라기보다는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조모의 양육지원에 간접적으로나마 보상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액은 대부분 취업모가 결정하였으며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에 조모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알아서’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금액은 취업모의 소득이나 조모의 경제적 형편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례 또는 반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수고비는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취업모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수고비는 감사의 표현이자 조모에 의존함으로써 느끼는 심적 부담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취업모들은 수고비를 드리기 때문에 떳떳하거나 덜 죄송하다고 했으며 수고비를 많이 드릴수록 감사를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취업모들은 조모가 제공하는 손자녀 돌봄은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하는 돌봄 서비스와는 다른, 가족원이 돌봄으로 인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고비를 많이 드린다고 호혜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각하지는 않았으며 수고비와 무관하게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 : 어머니랑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라고 의논을 하셨다거나?) 아니 제가 그냥 그렇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엄마가 너무 많다고 괜찮다고. 엄마도 완전히 아니라는 아니었죠. 그런데 돈을 조금만 달라고 엄마는 한 50만원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까지) 차비하고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정도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우겼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조금 드리면 계속 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미안하고. 나도 좀 덜 미안해야지 엄마한테 아이들 오래 맡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우겼어요. (중략) (돈을 드리는 것이) 제 심적으로는 훨씬 편해요. 제 심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랄까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10, 딸)

조모의 입장에서도 수고비는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조모들은 대부분 금액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수고비를 받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식 돈’을 받는 것은 그리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취업모가 전달하는 수고비를 당장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의 조모들은 대부분 수고비를 별도로 저축하고 있었다. 이들 조모들은 추후 성인자녀나 손자녀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함으로써 되돌려 줄 수고비를 현재 받고 있는 이유는 조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성인자녀나 성인자녀의 배우자가 심적 부담 없이 편하게 조모의 양육지원에 의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조모의 경우 충분한 수고비를 받음으로써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해진 경우도 몇 사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조모는 성인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취업모를 돕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조모의 경우

청소나 식당 일 등을 해도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임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 돌봄이 생활비 지원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였다.

(며느리가 나중에 잘) 하리라는 생각은 안 먹고 살아요. 나도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가 하고 있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략) 애들한테 잘하라는 건 없어요. 아직은. 너희들 나한테 잘 해라 잘 해라. 아직은. 주변은 거부는 안 하고 받으려고요. 왜? 받아서 모았다가 다시 주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14, 시모)

2) 세대간 거주형태의 다양성

수고비와 함께 주거라는 물리적 자원 역시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관계 경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우선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면서 주거지에 변화를 경험하거나 동거형태가 복잡해 진 경우가 많았다. 우선 21쌍 중 1/3에 해당하는 7쌍은 3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중 2쌍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와 동거를 한 경우였고 1쌍은 사별한 친정모와 동거하기로 결혼 전부터 약속을 했던 경우였다. 나머지 4쌍은 따로 살던 기혼의 성인자녀가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형태, 즉 ‘연어족’의 양상을 띠었다. 이 4쌍 중 3쌍은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 시부모와 3세대 가구를 형성했으며, 1쌍은 시부모와 동거를 하다가 셋째를 낳으면서 시모가 양육지원을 거부하여 친정으로 들어온 경우였다. 연구에 참여한 취업모들은 3세대 가구 형성에 대해 부모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얹혀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매개로 한 3세대 가구의 의존적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으나 시부모에게 양육뿐만 아니라 주거도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크고 시모가 가사노동을 제공하므로 육체적으로도 편리하여 불편함보다는 얻는 것이 많은 거주형태라고 보았다. 조모들 역시 3세대 가구는 성인자녀 세대에게 유리한 거주형태라고 여겼다.

(주변에) ‘어머님한테 얹혀살죠’ 이렇게 얘기하죠. 집도 어머님 집이고. 모시고 사는 건 진짜 아니죠. 모시고 뭘 하는 게 있어야 모시고 살죠. 저희가 돈을 다 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얹혀사는 거 맞으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중략) 어떻게 보면 요즘 엄마들이 되게 약은 거거든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애를 맡기면)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이득이고 사실 직장을 나가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부딪힐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약은 거죠 젊은 여자들이. 부모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1, 며느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들 때문에 같이 살지. 그것도 따로 살면 자유도 더 있고 그럴 텐데, 보통 애들 때문에 같이 살지. 시부모가 막 그렇게 간섭을 하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같이 사는 것도 저한테 득이 되지 나쁜 건 없잖아요. 그리고 시부모가 별나고 이러면 저희들도 간섭 받기 싫어하고 이럴 텐데. (중략) 보통 부모들이 자식한테 다 도움을 주지 뭐, 돈

뜬어서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 도움 되니까 같이 살지 안 그러면 뭐 지들 다 따로 살려고 원하고.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밀어주고 이리저 안 그러면 굳이 같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이야 뭐 그렇게 따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됐지만 요즘 부모들은 다 따로 살려고 그러지 부모가 꼭 같이 살려고 그러는 부모 별로 없어요. 서로 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7, 시모)

시부모와 3세대 가구를 형성한 경우는 모두 시부모가 동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는데, 조모와의 면접 결과 양육지원을 ‘미끼’로 아들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친정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할 경우 아들이 처가와 가까워지고 본가와 멀어지게 되거나 아들이 장모 눈치를 보게 될까 우려하는 마음에 아들 부부와 동거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래는 3세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시모와 며느리의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처갓집 근처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상하더라고. 아직은 내가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갓집 근처로 가서 살면 괜히 그 쪽으로만 쏠리는 거 같고, 그래서 방도 얻었었어요. 집도 얻었었는데, 그러다가 여기로 들어 왔지.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 쪽에 또 안 되게 되어서 또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그러더라고. 하여튼 지네들이 아쉬우니까 들어온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이 공짜가 없어요. (8, 시모)

그게(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딱 애기 때문인 거는 아니고, 왜 애기 때문에 그 본인의 식구가 딱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엄마, 친정 엄마 마음으로는 ‘애가 시댁 가서 고생활 텐데’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서도 ‘처가살이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당신 아들딸이 걱정이 좀 되가지고, 서로 봐주신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딸이 있어도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8, 며느리)

친정모가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3세대 가구를 형성하는 대신 일상생활은 3세대 가구와 유사하나 완전한 3세대 가구는 아닌 매우 복잡한 거주형태를 보였다. 시모가 양육을 지원하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모가 조부와 떨어져 주중에만 성인자녀의 집에 와서 생활하는 형태, 조모가 성인자녀의 집에 날마다 출퇴근 하는 형태, 손자녀를 날마다 조모의 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데려오는 형태, 손자녀는 조모의 집에서 전적으로 생활하고 성인자녀는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형태, 손자녀와 취업모는 조모의 집에서 생활하고 취업모의 남편은 잠만 따로 자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중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가, 조모가 어떤 공간에서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가, 어떤 공간에서 돌보는 것이 취업모에게 유리한가, 3세대 가구의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등이 고려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거주형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세대가 가구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공유함으로써 실제로는 3세대 가구의 생활 패턴이나 상호작용 패턴

도 많이 발견되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조모의 관계경험은 부담감과 부모 마음의 딜레마와 이에 대한 경계설정 전략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취업모의 관계경험은 의존관계와 의존관계 유지 전략으로 구조화되었다. 또한 분석결과 손자녀 양육지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리적 차원으로 수고비의 상징성과 세대간 거주형태의 다양성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모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는 달리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양측의 목소리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취업모 가족에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 시모 또는 친정모와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부모자녀관계가 도구화되는 한국가족의 트렌드(여성가족부, 2011)에서 아들과 딸의 구별이 약한 양계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매개로 3세대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시모-며느리 쌍에서는 많았던 반면 친정모-딸 쌍에서는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비록 손자녀 양육지원은 부계와 처계에서 모두 활발할 지라도 주거와 관련해서는 부처제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부모의 부양주체에 대해서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계없이 아들에게 더 큰 기대를 하거나 노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할 것이라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서는 양계화 경향이 발견되나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양계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대간 자원전달(intergenerational transfer)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지원교환을 지연된 호혜성(deferred reciprocity, delayed reciprocity)이나 생애과정 호혜성(life-course reciprocity)의 개념으로 설명한다(Antonucci & Jackson, 1989; Silverstein, Conroy, Wang, Giarrusso, & Bengtson, 2002; Uehara, 1995). 이 개념에 따르면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과 같은 성인자녀를 위한 지원은 추후 조모가 성인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지원은 추후 노부모 부양으로 이어지는 호혜성의 원칙보다는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인자녀를 도와주는 이타주의(altruism) 모델(Becker & Thomes, 1976; Boulding, 1973)이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모나 취업모 모두 손자녀 양육지원과 향후 노부모 부양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된 호혜성이 성립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 시모-며느리 쌍에서 추후 노부모 부양 가능성이 다소 언급된 점을 감안할 때 성인자녀의 성별로 지연된 호혜성의 개념이 상이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이후 성인자녀로부터의 지원수혜와 관계가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Geurts, Poortman, van Tilburg(2012)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들에게 손자녀 돌봄을

지원한 노부모는 향후 아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딸에 대한 손자녀 양육지원과 딸로부터의 지원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자녀의 성별에 따라 손자녀 양육지원과 추후 노부모 부양수혜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와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가족에서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향후 조모의 부양주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간 양가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Lüscher, 2000, 2004; Lüscher & Pillemer, 1998). Lüscher(2000: 15)에 따르면, 양가성이란 ‘양극화된 상태로 공존하는 감정, 사고, 의지, 행동, 사회관계, 구조’로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양립불가능(irreconcilable)하다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양가성에는 사회적 양가성과 심리적 양가성의 두 차원이 있다(Connidis & McMullin, 2002; Lüscher & Pillemer, 1998). 사회적 양가성이란 거시사회구조 수준의 개념으로 ‘태도, 신념, 행동에 대한 모순적인 규범적 기대’(Merton & Barber, 1963: 94-95)가 존재할 때 혹은 ‘특정 역할을 사회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규범이 대립’(Merton & Barber, 1963: 99)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심리적 양가성이란 심리-주관적 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충된 감정과 동기가 공존할 때 발생한다. 세대간 양가성은 이러한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에서 공존할 수 없는 모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Lüscher & Pillemer, 1998)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들은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모들은 한편으로는 ‘부모 마음’을 토대로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자녀가 아닌 성인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주변의 많은 조모들이 기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상충된 규범적 기대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회적 양가성의 상황에서 성인자녀가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장기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실망이나 원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감정은 성인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모순된 것으로 사회적 양가성이 심리적 양가성으로 이어지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대간 양가성은 국내외에서 모두 성인자녀가 경험하는 양가성을 위주로 논의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세대가 경험하는 세대간 양가성 연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켄거루족, 연어족, 기생독신 등으로 대표되는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을 연구함에 있어 세대간 양가성 개념을 적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이론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라 부모세대와 일시적으로 3세대 가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손자녀만 취업모 부부와 떨어져 조부모와 지내는 경우, 조모와 조부와 떨어져 성인자녀와 지내는 경우, 주중과 주말에 함께 지내는 가족이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세대간 거주양식이 발견되었다. 이는 손자녀 양육지원 상황에서의 거주양식은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자주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세대간 거주양식은 비단 손자녀 양육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노부모 돌봄 등 다른 세대간 지원의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간 동거를 연구함에 있어 고정적이지 않은 다양한 패턴의 거주양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 **경기도 황혼육아 실태 및 지원방안**(보고서 2011-22).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동배 · 박은영 · 김세진(2010). 손자녀 주양육자 및 공동양육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83-209.
- 김문정(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6), 914-923.
- 김문정(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3), 231-241.
- 김문정 · 정재원(2008).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주간양육 할머니를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6-65.
- 김문정 · 정재원(2010a). 공동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경험. **한국가족관계학회**, 15(3), 137-153.
- 김문정 · 정재원(2010b).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김미혜 · 성기옥 · 팽경희 · 최희진 · 최소영(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김윤주 · 방미란(2011).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경험-내러티브 탐구. **질적연구**, 12(1), 59-72.
- 김은정 · 정순돌(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7-213.
- 김은주 · 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체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김인지 · 이세인 · 이숙현(2010).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대 간 양가감정에 관한 질적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5), 73-85.
- 박홍주 · 정향미(2010). 조모와 손자녀의 기질, 조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4(1), 1-11.
-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백경흔(2009).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신체 및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10(2), 87-112.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555-13).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성미애(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 양소정 · 정경미 · 김원경(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13(4), 415-432.

- 여성가족부(2011). **가족정책기초연구**(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215-10, 연구보고 2011 -56). 서울: 여성가족부.
-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오진아(2007).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 구조모형. **아동간호학회지**, **13**(2), 201-211.
- 원서진(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 세대 가족과 비 3 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 이은희 · 하주영 · 이정란 · 황은희(2009). 맞벌이 자녀를 둔 조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 **질적연구**, **10**(1), 1-13.
- 이지연 · 김원경 · 정경미(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441-458.
- 이현수(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심리적 체험연구. **질적연구**, **8**(1), 67-78.
- 이현지 · 윤은주(2011). 영유아 양육책임유형에 따른 조모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79-200.
- 정재원 · 김문정(2010).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한경혜 ·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 Antonucci, T. C., & Jackson, J. S. (1989). Successful aging and life course reciprocity. In A. Warnes (Ed.), *Human aging and later lif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83-95). London: Hodder & Stoughton.
- Becker, G. S., & Thomes, N. (1976).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42-163.
- Boulding, K. E. (1973). *The economy of love and fear: A preface to grants economics*. Belmont, CA: Wadsworth.
- Connidis, I. A., & McMullin, J. A. (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58-567.
- Chin, M., Lee, J., Lee, S., Son, S., & Sung, M.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53-64.
- Gattai, F. B., & Musatti, T. (1999). Grandmothers' involvement in grandchildren's care: Attitudes, feelings, and emotions. *Family Relations*, **48**, 35-42.
- Geurts, T., Poortman, A.-R., & van Tilburg, T. G. (2012). Older parents providing child care for adult children: Does it pay off?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 239-250.
- Goetz, J., & Le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Gubrium, J. F., & Holstein, J. A. (1990). *What is family?* Mountain View, CA: Mayfield.

- Hagemeister, A. K., & Rosenblatt, P. C. (1997). Grief and the sexual relationship of couples who have experienced a child's death. *Death Studies, 21*, 231-252.
- Holstein, J. A., & Gubrium, J. F. (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ee, J., & Bauer, J. W. (2010). Profiles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 455-475.
- Lee, J., & Bauer, J. W. (in press).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Lüscher, K. (2000). *Family issues between gender and generations* (Seminar report,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Vienna: Austrian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 Lüscher, K. (2004). Conceptualising and uncovering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n K. Pillemer & K. Lüscher (Eds.),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s: New perspectives on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pp. 23-62). Oxford: Elsevier Science.
- Lüscher, K., & Ph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13-425.
- Merton, R. K., & Barber, E. (1963). Sociological ambivalence. In E. Tiryakian (Ed.), *Sociological theory: Values and sociocultural change* (pp. 91-120). New York: Free Press.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Ok, S. W. (2011). Continuity and change in patrilineal culture of Korean families. In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Ed.), *Korean families: continuity and change* (pp. 1-18).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th ed.). Thousand Oaks, CA: Sage.
- Silverstein, M., Conroy, S. J., Wang, H. T., Giarrusso, R., & Bengtson, V. L. (2002).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adult life cours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B*, S3-S13.
- Uehara, E. S. (1995). Reciprocity reconsidered: Gouldner's "moral norm of reciprocit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483-502.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 세대간 지원 제공과 수혜의 의미

강 유 진(총신대 교수)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와 자녀 양육을 부탁한 취업모 쌍방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통해 양육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손자녀양육을 둘러싸고 노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양육지원과 자녀세대의 양육수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상호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를 탐색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치관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자녀세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세대가 도와주고,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맞벌이를 하는 자녀세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 낯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가족가치관 역시 변화함에 따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의미가 과거의 것과 달라졌습니다. 또한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 역시 예전과 다릅니다. 이에 따라 손자녀양육 지원을 둘러싼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은 유교적 가족주의가치관에 의한 동일한 해석, 즉 가족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지원제공의 의미가 아니라, 자녀세대와 노부모세대가 처한 다양한 삶의 처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적 분석을 통해 손자녀양육을 중심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오고 가는 지원과 수혜의 주관적 의미가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는 양적 연구가 보여줄 수 없는 절대적 총량 이면에 존재하는 복합적이고 개인적 해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의 토론은 연구자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 경험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연구논문으로서 독자들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되묻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전체적으로 연구문제와 연구결과의 제시가 일관적인지, 연구결과가 타당한 소제목들로 구성되었는지, 그 외에 연구문제에서 다루어야 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연구자가 질적 분석을 통해 알고자 한 ‘질문’이 보다 명확히 나타났으면 합니다. 즉, 연구자께서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독자에게 그것의 타당성을 설득하려면 문제제기에서 명확한 질문(연구문제)을 던지고, 연구결과는 그 질문에 답하는 구조로써 본문을 구성하면 본문의 긴 서술들이 좀 더 분명하고 설득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문제제기 부분에서 손자녀 양육 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막연히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연구의 부제에서 강조하였듯이 ‘세대가 교환하는 지원의 제공과 수혜에 관한 주관적 해석의 다양성’으로써 보다 구체화시켰으면 합니다. 세대 간 돌봄제공과 수혜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이 가능한 절대적 총량을 비교함으로써 세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세대간 오고 가는 절대적 총량의 이면에 존재하는 주관적 의미를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세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가 이외에도 도움을 제공하는 입장과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도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하여, 연구의 질적 분석을 위한 질문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이 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제기 마지막 부분에서 본 연구자가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모의 경험	취업모의 경험
지원경험	돌봄지원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돌봄에 대한 대가(양육비 등) 지원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수혜경험	돌봄에 대한 자녀세대로부터의 대가(양육비 지원, 기타 서비스지원 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조모로부터 자녀돌봄수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위의 첫 번째 제안과 연결하여 연구결과 부분이 연구문제에서 던진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형식으로 소제목들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조모의 관계 경험’이라는 큰 제목에 대한 소제목을 지원 제공에 대한 주관적 해석, 수혜에 대한 주관적 해석 등 연구문제와 연결된 표현을 사용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그 제목에 따라 재배치한다면, 연구결과가 좀 더 분석적이고 설득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연구방법부분에서 연구참여자들을 면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엄격하게 질문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등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위의 연구문제 이외에도 조모의 손자녀양육경험 및 취업모의 양육지원수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상태 등),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특성, 가족의 경제적 지위 등), 돌보는 손자녀수, 돌봄시간, 돌봄형태(전일제, 주중돌봄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영향요인들을 본 연구에서 탐색할 또 하나의 질문목록으로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즉, ‘조모/취업모의 관계 경험에 관련된 요인’ 등의 또 하나의 파트로써 엮는다면,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하신 ‘사회구성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이 간과한 세대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관계의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

모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주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녀돌봄에 관한 노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험들은 역설적으로 손자녀돌봄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최종본을 학회지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